한국언어정보학회 소 식 제 16 호 (1998년 11월)

KSLI Newsletter (Korean Society for Language and Information) No. 16, November 1998

449-791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왕산리 산 89 한국외국어대학교 인문대학 언어학과 내

전화: 0335-330-4293/4286 전송: 0335-330-4074 e-mail: hrchae@maincc.hufs.ac.kr

---

가 언어와 정보 원고 모집

우리 학회지 언어와 정보 (ISSN: 1226-7430) 2권 2호가 1998년 12월에 발간될 예정입니다. 이 책과 내년 호에 실릴 원고를 모집하고 있으니 편집인 이현우 교수 (인하대학교 영어교육과)에게 여러분들의 좋은 논문을 많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(032-860-7857 (O), 032-816-6795 (H), hylee@dragon.inha.ac.kr).

나 회원 가입 및 회비 납부 안내

본 학회에 회원으로 가입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총무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. 학기당 회비는 일반 회원이 15,000원이며 학생 회원은 3,000원입니다. 회비는 발표회 모임에서 직접 내시든지 은행 구좌로 간사에게 송금해 주시면 됩니다 (예금주: 이하원, 구좌번호: 132-20-202434, 제일은행 한국외국어대 지점).

다 11월 14일 모임 발표자의 논문 초록

A Default Inheritance Approach to VP-ellipsis

이해윤 (서울대)

생략구문에 대한 주요 연구과제는 생략된 부분을 올바로 복원시킬 수 있는 해석장치를 설정하는 일이다. 이를 목표로 본 논문은 다양한 생략구문들 중에서 VP-Ellipsis를 다루며, 나아가 대명사의 중의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. 먼저 기존 연구들 (Sag 1976; Darlymple, et al. 1991)을 검토한 후에, Knowledge Representation 분야에서 사용되는 Default-Inheritance 방식에 의한 VP-Ellipsis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. 이를 위해 두 단계로 구성되는 모델을 설정한다. 첫 단계인 통사적 층위에서 HPSG식의 규칙에 의한 통사구조를 형성해 내고, 다음 단계인 해석층위에서 생략부분의 해석이 이루어진다. 즉, 문장연결체는 하나의 프레임을 형성한다는 전제하에, 불완전한 문장은 원형적 명제로부터 부족한 정보를 디폴트상속받는다.

본 논문은 이 모델에 의거하여 등위접속문과 담화상의 VP-Ellipsis를 다루며, 나아가 선행어 VP가 대명사를 포함할 경우, 전체 범주 VP 혹은 개별 범주들 (V, NP)의 디폴트 상속가능성에 근거하여 대명사의 strict vs. sloppy 해석 차이를 설명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. 이외에도 다른 생략구문들 (conjunction reduction, gapping, nonconstituent coordination, etc.)에 대한 통일적인 분석 가능성을 보여 준다.

한국어의 메아리 질문

김종현 (서울대)

종래 '반복요청 (repetition-request)', '놀라움 (surprise)', '믿기 어려움 (incredulity)', '반박 (retortion)' 등으로 무리 지워지거나 간접인용법과 관련된 형태 분석에 머물러 있던 (한국어의) 메아리 질문 '-다고?, -냐고?, -라고?, -자고?' 등에 대해 화용과 담화의 측면에서 그 기능을 설명하고 형태와 기능 사이의 상관 관계를 평

가한다. 소설, 희곡, 신문 등에서 수집한 자료에 대한 관찰과 해석으로부터 가설을 세우고, 메아리 질문의 선행발화와 관련한 제약과 화맥 의존성에 대한 화용론적 설명을 제시한다.

(1) 선행발화와 대비하여 메아리 질문이 구성되는 영향권 'E'로 크게 [반향성], [단언성], [추론성]을 구분하고 다음과 같은 부류의 메아리 질문을 논의한다.
E (반향성) + E(Ps) (단언성): 의문사 어구, 대용성, 초점 어구, 정도표현 어구
E (반향성) + E(Qs) (단언성) + E (추론성): 수사적 질문, 간접화행, 함축, ...
(2) 이에 앞서, 메아리 질문의 화용론적 기능으로 반복요청, 확인요청, 감정표현, 맞장구, 정보제공, 대화주제의 도입, 전환 등을 구분하고 그 개념적 의의를 평가한다.
(3) 제시되는 용례는 다음과 같이 선행발화 P와 메아리 질문 Q의 짝으로 주어진다.
P: 지갑을 잃어버린 사람이 누구예요?
Q: 누가 뭘 잃어버렸다고요?

Echo Questions: Metarepresentation and Pragmatic Enrichment

(반향 의문문: 상위표상과 화용적 의미보강)

노은주 (런던대 (UCL))

본 논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. 첫째는 echo question을 관련성 이론 (relevance theory)에서 정의 사용되고 있는 metarepresentational use로 분석하여, 종전의 주장들에서 결여되었던 일반성을 얻게 됨을 보여 준다. 둘째는 echo question을 metalinguistic negation과 비교 분석하여 그 유사성을 살펴 본다. 셋째는 metarepresentational element (상위표상적 요소)가 화용적 의미보강 (pragmatic enrichment)을 거쳐 그것이 사용된 발화문의 명제적 의미에 기여함을 주장한다. 이와 관련하여 echo question은 통사적으로 echo된 원래의 발화문에 더 가깝다는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고, echo question도 의문문(interrogative)에 속함을 주장한다.

제2 서술어로서 [게]구조

이영헌 (조선대)

제2 서술어로서 [게]구조에 대한 논의는 통사적으로 서로 상이한 범주를 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미적으로도 대단히 다양한 특성을 갖는 것으로 간주하였다. 본 연구에서는 제2 서술어로 쓰이는 [게]와 접속사로서 쓰이는 [게]를 구분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, 제2 서술어 [게]의 의미적 특성을 형식적으로 기술하는 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.

[게]구조를 부사형 접사, 보조적 연결어미, 종속적 연결어미, 부사절, 관계접사 어미, 수식관계 접속문, 도달관계 접속문 등으로 칭하고 있으나 이 가운데 동사구를 수식하는 경우와 접속사 역할을 하는 경우로 대별하여, 전자를 제2 서술어, 그리고 후자를 접속사로 간주한다. 그리고 이러한 구분은 주동사의 논항구조와 [게]구조의 논항구조가 갖는 상이성에 의하여 구분한다. 즉 [게]구조를 제2 서술어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는 [게]구조와 주동사가 공유하는 논항이 있어야 하고, 공유하는 논항은 필수논항이어야 한다. 그리고 접속사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는 공유하는 논항이 없거나 공유하는 논항이 존재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논항이 부가적 요소로 간주되는 논항인 경우이다.

이렇듯 [게]구조를 제2 서술어와 접속사로 구분할 수 있는 기준에 따라, 제2 서술어로 쓰이는 경우의 의미적 특성을 묘사성, 귀결성, 목적성, 강조로 구분하고 이들 특성을 형식적으로 기술한다. 예컨대 제2 서술구의 명제적 표현을 p라 하고, 주동사의 명제적 표현을 q라고 할 때 의미적 특성은 다음과 같이 기술할 수 있다. 즉 묘사성은 $p \wedge q$, 귀결성은 $q \rightarrow \Box p$, 목적성은 $q \rightarrow \Diamond p$, 그리고 강조의 의미는 $q \rightarrow p\uparrow$로 기술한다.

대한 언어학회 학술 발표회 (1998, 10, 31) <전북대학교>
논제: 서술어의 논항구조와 의미적 특성에 관한 연구 이 영헌 (조선대학교)

㉮ 1998학년도 2학기 연구 발표회 계획 (한국언어정보학회): 제 37호

일시: 9/19, 10/17, 11/14, 12/12 (토) 9:30 a.m.
장소: 대우재단 빌딩 (서울역 앞 대우 빌딩 뒤) 세미나실
발표 시간: 기획 논문/강의--50분, 일반 논문--30분

9월 19일 (토), 9:30 a.m.

기획: 박병수/김종복 (경희대)	"Korean Relative Clause Constructions and an HPSG Analysis"
기획: 신자영 (서울대)	"Morphology and Semantics of Spanish Change of State Verbs"
일반: 노용균 (충남대)	"한국어 자원문법 구축의 실제"
일반: 최재웅 (고려대)	"한국어 특수조사 '-만'의 의미"

10월 17일 (토), 9:30 a.m.

기획: 김수연 (이화여대)	"Can We Compute the Preference in Anaphor Resolution: A Theoretical Approach"
기획: 류병래 (ETRI)	"HPSG의 의미역이론과 연결이론"
일반: 염재일 (연세대)	"Modality in Dynamic Semantics"
일반: 성원경 (Applications Technology, Inc.)	"말벗: 사용자 모델링에 기반한 지능형 대화 모델 (MALBUT: An Intelligent Dialogue Model Using User Modeling)"

11월 14일 (토), 9:30 a.m.

기획: 이해윤 (서울대)	"A Default Inheritance Approach to VP-ellipsis"
기획: 김종현 (서울대)	"한국어의 메아리 질문"
일반: 노은주 (런던대 (UCL))	"Echo Questions: Metarepresentation and Pragmatic Enrichment (반향 의문문: 상위표상과 화용적 의미보강)"
일반: 이영헌 (조선대)	"제2 서술어로서 [게]구조"

12월 12일 (토), 9:30 a.m.

일반: 이익환/이민행 (연세대)	"한국어 영조응사의 선행사 탐색에 대한 연구-- 확대 정보포장이론에 의한 접근"
일반: 채희락 (한국외대)	"이동동사와 목적격 표지"
일반: 이현우 (인하대)	TBA
일반: 이예식 (경북대)	TBA

대우재단 빌딩의 주차장이 협소하고 주차권 발급이 한정되어 있사오니 (5매), 가급적 대중 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주십시오.
발표 및 휴식 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발표자와 참석자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발표자가 OHP 사용을 원할 경우 총무에게 미리 알려 주십시오.